

대전 아파트값 6주째 '질끔 하락'... 단지별 혼조 양상

전세가격은 상승기조... 세종 매매·전세 내림세 심화

관망세가 이어지며 대전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이 약보합권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거래가 다소 한산한 가운데 개발기 대감과 정주여건에 따라 단지별 상승·하락의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것. 전세가격은 임차문의가 늘고 신축 및 수리상태가 양호한 매물 위주로 상승거래가 발생하며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세종은 입주물량 등 여파로 매매·전

세가격 하락세가 깊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4주(26일 기준) 전국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대전 아파트 매매가격은 0.02% 하락, 전주(-0.01%)보다 하락폭이 소폭 확대됐다. 매수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일부 급매물 위주로 거래되며 6주 연속 내림세다. 구별로 보면 유성구(0.03%)는 상승,

동구(0.00%)는 보합, 중구(-0.08%), 대덕구(-0.05%), 서구(-0.03%)는 하락했다. 전세가격은 0.05% 상승하며 전주(0.02%)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정주여건 양호하고 역세권 단지 중심으로 상승거래가 발생하며 오름세를 이어가는 분위기가. 구별로 보면 대덕구(0.14%), 유성구(0.08%), 동구(0.07%), 서구(0.03%)는 올랐고, 중구(-0.05%)만 떨어졌다. 세종 아파트 매매가격은 0.20% 하

락, 전주(-0.16%)보다 하락폭이 확대됐다. 15주 연속 하락세다. 신규 입주물량 및 매물 적체 영향으로 종촌·세움동 위주로 하락세를 보였다. 전세가격도 0.27% 하락하며 전주(-0.22%)보다 하락폭이 커졌다. 대평·아름동 위주로 내렸다. 충남 아파트값은 0.09% 하락, 전주와 같은 하락폭을 기록했다. 지역별로 보령시(-0.31%)는 죽정·명천동 구축 위주로, 홍성군(-0.24%)은 홍성·광천을 위주로 하락했고, 논산시(0.08%)와 공주시(0.01%)는 상승했다. 전세가격은 전주(-0.06%) 하락에서 0.02% 상승 전환됐다.

충북 아파트 매매가격은 0.04% 하락 전환됐다. 반면, 전세가격은 전주 보합(0.00%)에서 0.06% 상승 전환됐다. 청주시 구별 전셋값 변동률을 보면 상당구(0.19%), 흥덕구(0.07%), 서원구(0.02%), 청원구(0.02%) 모두 오름세를 나타냈다. 서경화 한국부동산원 충청지역본부장은 "대전 아파트값은 관망세 속 개발기대감 및 정주여건에 따른 단지별 상승·하락이 혼재하고 있다"며 "전세가격은 신축 등 양호한 매물 위주로 상승거래가 발생하면서 상승세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김용배 기자 y2k425@dailycn.net**

김천치유의숲 '오미자 비빔밥' 어르신 일자리·관광 다 잡았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김천치유의숲이 산촌마을과 협업한 오미자 고추장 비빔밥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는 물론 어르신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3일 진흥원에 따르면 김천치유의숲은 경북 김천시 산촌마을 소재 옛날솥마을과 손잡고 산림치유와 농촌체험이 결합된 '슬기로운 촌강스'를 공동 기획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어르신들이 직접 기른 농작물로 만든 힐링 도시락(오미자 고추장 비빔밥)은 지난해에만 5000그릇을 판매해 40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평균 76.5세의 고령 어르신들에게 일자리 제공과 마을 소득 증대 효과를 제공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또 어르신들의 솜씨를 활용한 고추장·손두부·떡 만들기·황도염색 등 산림치유프로그램과 농촌체험을 결합한 숲관광 상품을 개발해 지난해 체험마을 3곳과 1000만원의 수익을 올리기도 했다. 이는 농·산촌 지역 소규모 마을들의 자생력을 키우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우수사례로 주목돼 귀농·귀촌자들의 견학 코스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김천 옛날솥마을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박한진 김천치유의숲 센터장은 "산촌마을과의 협업사례는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방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라며 "앞으로도 농촌체험농장을 활용한 식도락 숲여행 상품 등을 개발해 지역과 끊임없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수경 기자 sjyoo0327@dailycn.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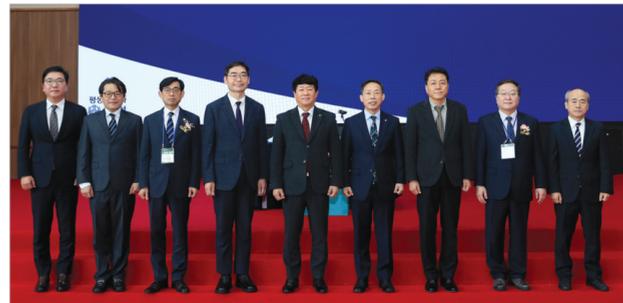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 中소 "통탄"

"중소기업 폐업과 근로자 실직 초래해 민생 어렵게 하는 일... 유예 재차 촉구"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유예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지역 중소기업계는 입장문을 내고 중처법 유예 무산에 대해 "통탄스럽고 비참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3일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 지역본부에 따르면 논평을 통해 "결국 83만이 넘는 중소기업인과 중소 건설인, 소상공인은 형사처벌에 따른 폐업 공포에 빠졌다"며 이 같이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지난 31일 국회를 시작으로 수도권, 호남권 등 전국 각지에

서 이어진 결의대회에 총 1만2500여 중소기업인과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이 모여 법 적용 유예를 간절하게 호소했지만 법안처리가 재차 무산되면서 형사처벌에 따른 폐업 공포에 빠졌다"고 호소했다. 이어 "복합경제 위기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근로자와 함께 안전한 일터를 구축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이들에게 최소한 준비할 시간만이라도 달라는 요구를 무시한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1222개의 산업안전

보건법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 사업주를 과도하게 처벌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폐업과 근로자들의 실직을 초래해 민생을 어렵게 하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인들의 절규와 민생을 외면하지 말고 남은 임기 동안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21대 국회는 정기가 경제를 밀어주고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는 국회의 모습으로 기억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은혜 기자 eunhye7077@dailycn.net**



지난 28일 신협중앙회가 제51차 정기대의원회에서 신용·공제사업대표이사과 감사·감독이사를 비롯한 7명의 전문이사를 선임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신협중앙회 제공)

신협, 제51차 정기대의원회 전문이사 선임

신용·공제사업대표이사 등 7명 선정

신협중앙회가 지난 28일 대전 신협 중앙연수원에서 열린 제51차 정기대의원회에서 신용·공제사업대표이사과 감사·감독이사를 비롯한 7명의 전문이사 선임을 의결했다. 신임 신용·공제사업대표이사에 손성은 전 부산광역시 금융창업정책관을 선임하고,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역임한 이희준 감사·감독이사를 재선임했다. 임기는 3월 1일부터 오는 2028년 2월 29일까지다. 손성은 신용·공제사업대표이사는 22년간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에서 재직했다. 최근까지 부산광역시 금융창업정책관을 역임하며 부산시 창업 정책과 블록체인 관련 업무를 지휘하는 등 금융정책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리더십을 겸비했다는 평가다.

이희준 감사·감독이사는 금융감독원에서 28년간 검사기획, 금융감독, 현장점검, 건전성 감독업무 등 주 역할을 담당했다. 감사·감독 분야에서의 풍부한 경험으로 지난 제50차 정기대의원회에서 신협중앙회 감사·감독이사로 선임돼 868개 신협의 감독정책을 총괄하고 있으며, 이번 정기대의원회에서 재선임됐다. 이와 함께 5명의 사외 전문이사도 새로 선임됐다. 신임 전문이사로는 김경수 법무법인 플래닛 대표변호사, 이원준 충청대학교 교수, 정두하 전 우리FIS 상무가 각각 선출됐다. 김상현 영남대학교 교수와 명승구 고려대학교 교수는 재선임됐다. 김경수 전문이사과 김상현 전문이사는 감사위원을 겸임한다. **유수경 기자 sjyoo0327@dailycn.net**

국세청, 세종수목원서 '나의 세포 깨우기' 행사 (세금포인트) 국세청이 3일 '제58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세금포인트 혜택을 널리 알리고자 국립세종수목원에서 '나의 세포(세금포인트) 깨우기' 행사를 개최했다. 세금포인트는 개인이 납부한 소득세액과 법인(중소기업)이 납부한 법인세액 10만원당 1점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날 행사에서는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1인당 1000원의 관람료 할인을 받고 입장한 관람객(선착순 200명)에게 자연의 가치를 제고하고자 반려식물을 증정했다. 또 사계절전시온실 내 마련된 포토존에서 촬영한 기념사진을 본인의 SNS에 세금포인트 해시태그(#)와 함께 게시한 관람객에게 휴대용 백(선착순 200명)을 제공했다. 특히 세금포인트를 조회하고 다양한 혜택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국세청 직원들이 관람객들에게 직접 사용방법을 안내하고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수경 기자 sjyoo0327@dailycn.net**



대전신세계, 방문객 발길 잡는 '봄꽃 포토존' 활짝... 대전신세계 Art&Science가 3월 한 달간 '봄이다, 세계가 핀다' 봄 캠페인을 진행하고 2층에 수백 개의 아름다운 꽃으로 포토존 조성, 봄의 기쁨과 에너지를 전달한다. (사진=대전신세계 Art&Science 제공)

KT&G, 28일 주총... 대표이사 선임 등 안건 상정

KT&G가 지난 28일 이사회를 열어 주주총회 개최를 결의하고 주총 소집을 공고했다. 주주총회는 오는 3월 28일 대전 KT&G 본사 인재개발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주주총회에는 재무제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이사 2명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KT&G 이사회는 주주제안에 따라 이사 2명 선임의 건에 대해 4명의 후보 중 2명을 집중투표 방식으로 선임하기로 결정하고 대표이사 사장 방경만 선임의 건과 사외이사 임민규 선임의 건, 중소기업은행의 주주제안 안건인 사외이사 손동환 선임의 건, Agnes의 주주제안 안건인 사외이사 이상현

선임의 건을 상정하기로 결의했다. KT&G 관계자는 "주주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과 KT&G 그룹의 미래비전 및 성장 전략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장기적 관점에서 전체 주주의 이익과 회사 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은혜 기자 eunhye7077@dailycn.net**

한국산림기술인회, 9회 정기총회... 사업계획 논의

한국산림기술인회가 대전 KW컨벤션 아젤리아홀에서 '2024년 9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3일 산림기술인회에 따르면 이날 기술인회 임원 및 대의원을 비롯해 업무 분담인 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 한국산림기술사협회, 전국국유림영리단체협의회, 한국산림엔지니어링협회, 한국원목생산협회, 한국조경협회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총회는 지난해 주요사업 성과 보고를 통해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

한편, 올해 사업계획 등을 논의하고 기술인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총회 결과를 토대로 정관과 각종 규정을 개정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내부 업무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송승의 회장 권한대행은 "2024년 산림기술인의 권익 보호 등에 관심이 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의명 기자 young0425@dailycn.net**

코레일, 복합열차 승차권 표기 개선 등 우수 제안 8개 선정

코레일이 대국민 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를 발표했다. 3일 코레일에 따르면 접수된 아이디어 561건 중 심사를 거쳐 8건을 우수 제안으로 선정했으며 향후 서비스 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다. 최우수 제안으로는 '복합열차 오승 예방을 위한 코레일톡 승차권 종착역 표기'가 선정됐다. KTX-산천 등 종착역이 다른 두 개의 열차를 연결한 복합열차의 승차권에

'열차별 종착역'을 추가 표기해 잘못 탑승하는 사례를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우수 제안은 '전달받은 승차권에 열차 운행현황 조회 기능 추가'가 뽑혔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전달받은 승차권에서 실시간 운행 현황 조회로 지연 등 이례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우수 제안자에게는 코레일 사장 표창과 열차 운임 50% 할인쿠폰 등을 증정한다. **유수경 기자 sjyoo0327@dailycn.net**

한국타이어, 현대차 인증 중고차에 타이어 공급

한국타이어가 현대자동차와 인증 중고차 타이어 공급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3일 한국타이어에 따르면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현대자동차 인증 중고차가 매입하는 현대 및 제네시스 브랜드 주요 차량의 상품화 과정에서 타

이어 교체에 필요한 차량에는 한국타이어 제품이 장착된다. 승용 차량에는 초고성능 프리미엄 타이어 벤투스 S2 AS와 사계절용 벨런스 타이어 키너지 ST AS, SUV 차량에는 프리미엄 콤포트 타이어 다이아프로 HPX와 온로드용 SUV 타이어 다

이나프로 HL3가 장착된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이번 파트너십 구축을 계기로 글로벌 무대에서 최상위 기술력과 프리미엄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은 자사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차량의 성능을 한층 향상시키는 동시에 중고차 핵심 가치인 소비자 신뢰 및 투명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혜 기자 eunhye7077@dailycn.net**

골프존카운티, 현장이벤트

내장객 대상 22일까지

골프존카운티는 20번째 골프장인 '골프존카운티 더골프'의 오픈을 기념 '앱 푸시 동의 화면' 없는 복권을 굿어-봄' 즉석당첨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1일부터 22일까지 약 3주간 골프존카운티 더골프 내장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벤트 기간 내 골프존카운티 더골프에 내장해, 클럽하우스 이벤트존에서 골프존카운티 모바일 앱 푸시 알림 동의 화면을 보여주면 100% 당첨되는 즉석복권이 제공된다. 당첨된 상품은 클럽하우스 이벤트존에서 교환할 수 있다. **김용배 기자 y2k425@dailycn.net**